

“불경 누구나 쉽게 읽어야죠”

한글역경 외길 27년 송성수 씨

부처님의 가르침이 울긋이 담긴 법보(法寶)로 불자들이 귀의해야 하는 경전을 보다 쉽고 바르게 알 수 있도록 우리말로 번역하는 역경. 포교 도제양성과 함께 불교발전을 위해 최우선으로 역경되어야 할 3대불사로 열불처럼 불리워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 속에 유명무실하다시피 방치돼온 역경일에 한평생을 바쳐 온 송성수(宋成洙·65)씨를 한글날을 맞아 만났다.

—올해로 27년째 역경일만 해오셨는

더 짧았습니다. 그러나 정보보조가 끊기고 고계에서 역경을 등한시하자 대장경 번역불사는 사들여지면서 역경사들도 하나 둘 다른 일을 찾아 떠나게 됐습니다. 결국 다른 일 할 줄 모르는 저 하나만 남게 된 셈이지요.

—역경인의 자세와 역경의 원칙이랄까요 그 지침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운허스님께서 공사적간에 늘 말씀하시는 당신 소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역경일을 해야한다면서 앞장서 이끌고 있



송성수 씨. 역경일을 해야한다면서 앞장서 이끌고 있다.

수요 인터뷰

데, 어떤 인연으로 이 길로 들어서게 되셨는지요.

조계종 배출 역경사 1기

▲지난 67년 정훈학교 교관생활을 마치고 무슨 일을 할까 찾던 참이었는데 마침 신문에 실린 조계종 제기 역경연수생 모집 광고를 보고 응시했지요.

그때 스님 5인과 저를 비롯한 재가 5인 등 10명의 연수생이 선발됐고 그 즉시

오니 주위에서 “운허 자가 뭐를 안다고 역경할데 해?”하는 소리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스님은 “다 아는 사람이 안하고 있으니 내라도 해야지. 그리고 설사 잘못해 내가 지옥에 가더라도 그것이 한국 중생들에게 더 나으니 내가 한다”고 답하십니다. 그래서 역경연수생이던 우리들에게도 될 많이 알아서 아니라 단 지 부처님 가르침인 불경이 중국말로 보존돼와 한국 중생들은 읽을 수가 없으니

대장경 60여권 번역... “역경 천직으로 알고 살아”

탐·불상·법당 조성만이 불사라는 인식 바뀌야

운수사에 설치된 역경연수원에서 1년6개월간 합숙하며 교육을 받았습니다.

당시 역경원장이신 운허스님을 비롯해 탄허스님 법정스님 월운스님께서 일일이 지도해 주셨습니다.

—조계종 배출 역경사 1기로 오직 역경일만 전념해서 역경의 산역사시라고 봅니다. 한국불교 역경불사를 열고 추진하셨던 운허스님들 큰스님 문하에서 공부하시고 또 일하셨는데 그 당시 역경생활에 대해 들려주십시오.

▲1964년 역경원이 설립되고 청담스님께서 총무원장으로 계시면서 역경은 그 나름으로 종단차원의 3대불사의 하나로 관심과 지원이 따랐었습니다. 당시 청담스님은 역경사들이 한군데 모여 서로 의논하고 채우면서 번역하는 것이 좋으며 봉은사를 역경장으로 지정했습니다. 배출된 역경사들이 봉은사에 모여 스님들과 똑같이 사찰생활을 하며 일했습니다. 특히 박대통령·당시 팔만대장경 번역사업을 정부에서 지원해 78년까지 3년여를 신심나게 일했지요. 그때는 받은 교료의 30%를 역경기금으로 모았으니까요. 그리고 역경 연수생 2기로 스님들만 7명을

역경이야말로 시급한 과제이며 일차 직역한 한글대장경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하셨던 게지요. 따라서 역경원 설립이후 첫 사업이 한글대장경 250권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27년을 전업 역경사로 살아오셨는데 하신 일의 양도 엄청나리라 짐작됩니다. 그 양이 얼마만큼인지 그리고 기억에 남는 작업도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운허스님때 시작한 한글대장경 일만 해왔습니다. 오랜 세월이라 기억이 희미한데... 지금까지 60여권정도 역경했을까요. 모두 다 쉽지않은 일이었지만 <중경록> <유가사시론> <경율이상>을 번역할 때 특히 보람이 컸습니다.

—거사님은 두문불출 일만하시는 분으로 알려져 있던데요. 하루일과가 궁금합니다.

▲역경연수를 마치고 이후 줄곧 25년 여를 절에서 살았습니다. 불암사에서 2년 봉은사에서 23년... 가족들과는 주말에 만났지요. 절에서의 생활은 절규칙대로였고 이제 1년남짓 집에서 아내와 둘이 살고 있습니다. 4시에 일어나 30분정도 아이타입볼을 합니다. 그후 2시간동

안 번역하고 오전에 3시간 오후에 3시간을 더 일하지요. 밤에 잠들기 전에는 반드시 다음날 번역할 내용 전체를 두번 이상 통독합니다.

—역경의 중요성에 불구하고 무관심 속에 방치된 이 길을 묵묵히 걸어오셨는데 어려움은 무엇인지요. 그리고 어떻게 이겨내셨는지요.

재원 마련 전불자 동참을

▲세상사 모두 어려움이지만 역경사에 대한 처우가 열악해 가족을 편히 부양하지 못한 점이 마음 아픕니다. 더욱 견디기 힘든 것은 주위에서 “능력 없어서” 이 일을 떠나지 못하는 것 처럼 얘기할 때는 분개심까지 들었지요. 또한 언제나 혼자였던 외로움도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었습니다.

사실 40대 후반에는 그만둘까 고민도 했습니다. 그러나 묘히 더군요. 다른 일을 찾으려고 애를 써도 해결이 안됐고, 그 반면 어느때나 스카우트제안이 있었지만 그때는 결코 떠나기 싫더군요. 결국 역경은 제 업(業)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송광사에서 출가생

활을 5년정도 했습니다. 군입대후 환속했습니다만, 부처님 시은도 입었고 수행도 하고 싶었습니다. 부처님 말씀 안에서 생활하는 역경일은 참으로 복받은 직업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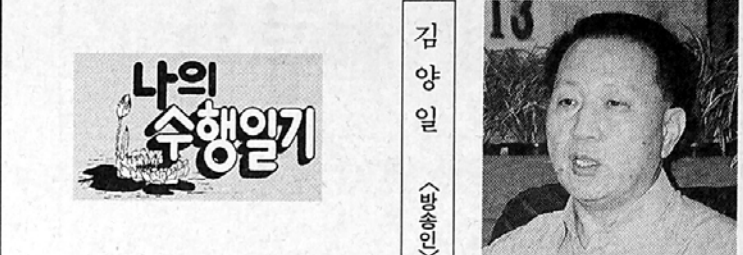
—역경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과제는 무엇인지요?

▲늘 제기되는 얘기입니다만 역시 재원의 확보입니다. 물론 전문역경사의 양성도 중요하지만 재정이 마련되면 자연스럽게 해결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역경사업에는 무엇보다 스님들이 앞장서 참여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불상조성, 탐·법당건립만이 불사라는 신도들의 의식도 달라져야겠지요. 그러나 이제 고계의 뜻있는 스님 신도들이 모여 후원회도 결성하는 등 활발한 관심과 지원을 보이고 있으니 역경불사의 전망은 밝다고 생각합니다.

—역경을 천직으로 알고 수행삼아 살아오신 거사님의 외길살이 오늘 한글날을 맞아 더욱 귀하게 여겨집니다. 감사합니다.

대담 : 위영란 부장



김양일 <박승인>

지금으로부터 약 40년전쯤 중학생시절. 부처님 오신날에 그지 부처님밖에 모르는 할머니 어머니와 함께 나는 인천에서 배길로 20여분 거리에 있는 자그만 암자같은 절을 찾은 일이 있다. 그때 집안의 어른들은 한결같이 내가 좋은 학교를 졸업하고 훌륭한 인물이 되기만을 바라며 매일 음력 초하루나 보름날이면 어김없이 절을 찾아 부처님께 축원을 지성으로 드리셨던 것이다.

그날 그 절의 젊은스님은 대충 다음과 같은 설법을 주셨던 것으로 기억된다.

자신과 같은 수행불자가 우리들의 대상이 되고 있는 큰 스님들의 경우 대개 일종의 오랜기간을 목표로 덩그러니 떨어진 작은 승방에서 오직 벽안을 바라보며 기도에만 열중한다. 이른바 면벽수행 기간을 거치게 되는데, 한 3년쯤 그런 수행을 하

주던 그 얘기가 그대로 들어 있었던 것이었다.

이런 연유로 이후 나는 후배들에게 또는 어려운 일에 처한 주위의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비법으로 이 면벽수행을 이용하기도 했다. 요컨대 자신이 목표로 삼는 일만을 오직 생각하고 그밖의 다른데는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이었다. 이 신념은 내가 약관 24세에 출발한 방승인으로 30년 가까이 지내는 동안 어려운 일을 만나도 쓰러지지 않고 아슬아슬하게 살아남는 묘약으로 통나루토막 쓰러지듯 병석에 누운 91년까지 작용하였다.

그후 4년동안의 병석에서도 나는 그 면

욕심이 병을 불러... 다시 면벽

병석에 누워 ‘마음 다스리기’ 공부로 병 이겨

고나면 자신이 기도하는 방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웬만한 일들은 보지 않고도 다 알 수 있는 정도가 된다고 했다. 여기에 머물지 않고 더욱 정진하면 천리 밖에서 나는 소리가 들을 수 있고 천리 밖의 물체까지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고 했다. 이걸 이름해서千里通이요千里眼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런 정도에서 머물지 않고 더욱 정진에 이르게 되는데 그걸 慧眼이라고 했다. 이름되면 자신의 일을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했으며 그 실례로 임진왜란 때의 명승 사명당대사와 서산대사를 들기도 했다. 이런 얘기를 들려주면서 그 스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면벽수행법을 자세히 가르쳐 주시는 것이었다.

그때 나는 국어 교과서에 실린 나다니엘 호손의 ‘큰바위 얼굴’을 떠올리게 되었고, 불공을 마치고 돌아온 식구들은 좁은 집에 서지만 각기 한 공간씩을 차지하고 각자 그 면벽수행을 시작했던 것이다.

그후 이런 정성이 부처님을 감승시켰을는지 나는 일류학교를 거쳐 남이 부러워할 정도의 일터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신입사원 연수교육시간에 들려준 어느 심리학교수의 강의 내용에 깜짝 놀랐다. 중학생시절 그 스님이 들려

벽수행을 통해 또 많은 걸 배우게 되었는데 내 자신이 설정한 그 비법속에서 오직 내 목표만을 향해 정진하라는 대목만 신경썼을 뿐 주위의 잡스런 욕심에서 눈을 돌리라는 대목에는 깨닫지 못했던 나를 발견하고는 내 큰병의 원인을 정확히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오늘 나는 자기부정의 반성과 자기긍정의 자각을 반복하는 면벽수행 4년을



거쳐 다시 ‘큰 바위 얼굴’에 도전하고 있고 ‘중생의 깨우침’을 위한 대열에 서 있는 것이기에 至高至極함을 지니고자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욕심으로나마 탐된 한쪽 벽면을 향해 어슬프게 무릎 꿇고 있는 것이다. 이 일은 아마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대도 끝내 해안의 경지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겠지만 한가닥 기대 또한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지금은 저세상에서 여전히 무릎 꿇고 앉아계실 할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80노구에도 쉬지않고 무릎꿇고 계신 어머니의 축원과 병든 몸결을 지키는 아내의 축원이 있기 때문이요, 지금은 백발이 되었을 그대 그 스님의 발원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경 축

국씨전영양소 후원으로 세계 여자 역도 선수권 대회를 개최하다

★일시 : 1995년 11월 ★장소 : 중국(광주)

● 세계인을 위한

다 이 어 트

5일 복용이면 3~5kg이상의 감량!

- 건강관리, 체력보강, 체력유지, 비만해소 100% 효과 보장
- 비만인에게 나타나기 쉬운 고혈압·당뇨·변비에도 탁월한 효과
- 10kg 미만 체중감량은 무조건 10일이면 끝
- 여러 제품으로 실패한 분들께 필히 권합니다

국씨전영양소란?

중국의 저명한 다이어트 전문가인 북경대 국민원 교수가 주관하고 의학과 운동 생리학 전문가들이 협조한 가운데 비만자들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특수 한방비법으로 제조한 세계 최초의 완전 천연, 영양 농축다이어트 식품. 중국 여자 역도선수들이 체중조절 및 영양식품으로 복용한 후 탁월한 효능을 인정받았으며 복용 5일이면 최저 3kg에서 5kg 이상 체중이 감량될 뿐만 아니라 인체에 필요한 영양은 공급되면서 체질개선, 혈액순환은 물론 노폐물까지 제거된다. 특히 학생들에게는 지능과 성장발육을 촉진하고 집중력이 향상되며 한번 감량되면 다시 비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그 특징이다. 오히려 학과에게는 영양 많은 식품으로서 건강관리에 있어 그 효과가 매우 높다. 중국, 미국과 합작하여 만든 제품.

● 심이 돈독한 佛子로서 악간의 자본금을 투자하여 확실한 수익이 보장된 국씨전영양소 사업에 동참할 헌신을 초빙합니다.

Mr. 박

개발자 국민원 교수(박사)약력

1973년~1978년 북경대학에서 식물학 연구

1978년 북경 영양연구소 입소

1978년 中南(중국 고위 간부 주거지)모택동 등소평 등 역대 중국고위관리 食品營養 고문 임명. 현 재임중

1985년 감비식품 연구 착수

1992년 8년만에 국씨전영양소 개발완료 현 북경대 교수

정 우 무 역

전화: (02) 929-0211~4

이제 다이어트는 국씨전영양소가 책임지겠습니다.